금남로에서

오르막서 내리막을 배우라

신 항 락
이사·논설주간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게 성공한 대통령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한 번도 성공한 대통령을 가져보지 못했다. 이승만 정권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하산길은 하나같이 비참했고, 초라했다.

오는 25일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4년간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으며, 들끓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측근들을 위한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 역시 거북스런 일이자 뻔뻔함이 묻어난다.

실패한 이 정권의 하산길

그도 5년 전 취임사에서 국민대통합과 인사대탕평, 지역균형발전, 경제위기 극복 등을 열거하며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걷겠노라"고 역설했지만 취임 초부터 불거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에서 그 '싹수'를 점치기에 충분했다. 광우병 파동은 국민적 봉기를 불렀고, 야당과 진보세력에 대해선 그 어떤 주장과 대화도 외면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에서 드러난 '영포회(영일·포항 출신 공무원 사조직)' 사건과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최측근들의 연이은 '쇠고랑'은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패착을 불렀다.

경제도 그 속성인 함정을 넘지 못했다. 그는 경제를 너무 쉽게 얕잡아 봤다. 성장 중심의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을 늘리고, 재정을 쏟아부으면 간단히 성장 목표를 이룰 거라 생각했지만 7%의 성장은 이상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었다. 친기업정책은 친부자정책으로 변질돼 체감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김대중 정부 때 초석을 닦아 놓은 지방균형발전도 '수도권 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 수도권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으로 오고자 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방 죽이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재임기간 계층·세대·이념간의 갈등은 심화됐고, 경제적·지역적 양극화는 도를 넘어섰다.

남북한의 일관된 대립각 구도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사태를 불러오면서 아직도 그 족쇄에 묶여 있다.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이 정부에 책임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의 가팔라진 하산길을 지켜보면서 호남사람들도 할말이 많다. 서슬이 시퍼런 군사정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 지긋지긋한 소외와 홀대를 당해온 까닭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호남은 인사든, 예산이든 '변방'에 지나지 않았다. 상당 기간 현직 장관 중에 이 지역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아집과 불통은 패착의 수

심지어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싹둑 잘라 경상도 쪽에 몰아주는 억지도 서슴지 않았다. 지역에 대한 대선 공약도 '공수표'로 끝날 공산이 크다. 26건(광주 12·전남 14건) 가운데 9건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인데도 재임기간 내내 '대독 총리'를 보낸 게 그다.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한 건 결과적으로 오기와 아집, 불통에 있다.

이제 그가 떠난 자리엔 박근혜 당선인이 자리하게 된다. 우리는 박 당선인이 향후 5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성공한 대통령은 성공한 대한민국, 성공한 국민, 성공한 호남으로 승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버리면 얻는다'는 격언을 항상 새길 필요가 있다. 먼저 당선인의 이미지로 비치는 아집과 불통부터 버려야 한다. 그가 국정 기조로 제시한 국민대통합과 인사대탕평, 지역균형발전, 경제민주화 등도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오히려 얻으려면 그의 대척점에 섰던 야당과 진보세력, 48%의 국민들을 껴안아야 할 것이다.

첫 단추인 인수위원회의 불통과 '깜깜이' 인사로는 싹수가 노랄 뿐이다.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낙마를 두고 "인사청문회 과정이 털기 식으로 간다면 누가 나서겠느냐"는 불만 섞인 어조는 박수를 받기 어렵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영남 대통령에 영남 총리로 진용이 짜인 것도 화합이나 대탕평과는 거리가 멀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지역 출신인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최근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51.6%)보다 낮은 48%에 그쳤다는 건 균형추가 흔들린데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인사든, 경제든, 북한문제든 과거로의 회귀는 안 된다. 몹쓸 것과 작별을 고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 정권의 내리막 길을 항시 염두에 두면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당선인이 약속한 "호남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도 여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hlshin@kwangju.co.kr〉

은펜칼럼

우리는 새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최 희 동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중용의 시중장편에 "군자는 중용을 지킨다. 그러나 소인은 중용에서 어긋난다. 군자가 중용을 행함은 군자답게 때에 맞추어 실현하나, 소인이 중용을 행함은 기탄(거리낌)함이 없다."는 공자의 말씀이 있다. 공자는 군자와 소인은 신분이나 부의 차이가 아니라, 중용의 행함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다. 곧 중용의 행함에 따라 군자도 소인이 될 수 있고,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군자는 '삶의 상황성'(時中)에 맞추어 중용을 실천하고, 소인은 '신중함 곧 거리낌이 없이 행한다'(無忌憚)고 구분하였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공자의 말씀이 실감난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제 자식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재물을 탐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힘든 일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가 만연한 사회는 '행복의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부끄럼'(廉恥)마저 없어져 버린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장을 하겠다는 사람의 여러 가지 일들만 봐도 과연 '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고위법관을 했는지 아리송하다. 바로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에 대한 '염치와 믿음의 실종'은 우리 젊은이들의 '정의'에 대한 감각을 상실케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출세에만 집착하게 하여, 나라와 사회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염병이 된다.

이번 대선에 나타난 호남민심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끄럼' 없는 행위의 기준으로 보니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에 대한 막무가내 지지나 지역주의로 폄하되는 것이다. 임금마저도 도성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도망갔던 임진난 당시 호남의병은 진주성까지 가서 목숨을 바쳐 호남을 지켰고 이순신장군의 주력군이 되어 왜적을 이 땅에서 쫓아냈다. 이후에도 호남인들은 나라를 위해 외세의 침탈에 맞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웠다. 해방이 되고나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반독재투쟁에 나서 옥고를 치렀으며, 목숨까지 바쳤다.

이렇게 호남은 의로운 일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계속된 수탈과 탄압 그리고 차별에도 개의치 않고 언제나 옳은 뜻과 바른 길을 택했다. 이렇게 면면히 흐르는 호남인의 올곧은 정신이 민심으로 표출된 것이다. 호남에 대한 폄하는 그들의 역사의식이 얼마나 천박한 것임을 실증케 한다. 일제에 의해 조작된 식민사관에 의한 그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시각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자랑스러운 고대사부터를 스스로 부정하고 왜곡하여 마치 일본의 식민지배가 당연했고, 더 나아가 혜택인 것처럼 주장한다. 또한 해방 후 일제에 협력했던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독립운동사와 근대사를 왜곡하기까지에 이른다. 군사독재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호남인들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 새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인선을 바라보면서 의구심과 아쉬움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대가 바라는 참신한 인물이 아닌 소인들의 등용 때문이다. 그러니 한 편에서 '또 호남이 팍팍한 5년을 살게 되었구나'라는 자조적인 한탄의 소리도 들린다. 이제부터라도 염치를 아는 정직하고 참신한 인물의 등용을 기대해 본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더 높여야

서 미 애
무안군 삼향읍·보건학 석사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지요?"란 말을 자주하게 된다. 또한 "인생에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자주 회자되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낮아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눠 가질 수 밖에 없다. 201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성은 6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80%에 비하여 매우 낮은 형편이다.

잘사는 사람이 자유스럽게 고급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경제양극화로 필수의료에 대하여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고급의료를 받는다면 국민정서가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기본진료혜택은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보장성이 80%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추계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여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36.6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재원마련은 가능한가? 크게 수입 확충과 지출 억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수입확충을 위해선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2원화된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현행 근로소득(보수)중심 부과에서 보수 외 소득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대하여도 일정부분(0.51%)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고지원금에 대하여도 정산을 실시하여 국고지원율(20%)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약 23.3조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급속한 인구고령화, 환경·생활습관변화 등으로 노인성·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현행 치료서비스 중심의 급여구조에서 예방, 조기치료 등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대응체계로 변화가 필요하다. 공단에는 그동안 피보험자를 관리하면서 모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국민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전국단위 공단 조직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개인별 건강행태 및 질병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면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급여결정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는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 후 치료비에 대하여 공단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청구를 하고 심사가 완료된 이후 공단에 통보되면 통보된 대로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정책임자인 공단은 심사결과대로 지급해야만 한다면 재정책임을 질 수가 없다. 또한 급여 여부 및 가격 결정을 수행할 전문평가위원회 역시 제3의 기관에 있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공단은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애초 의도했던 심사의 객관성 유지라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합리화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출부분의 변화를 꾀한다면 5년간에 약 14.6조원을 절감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80%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한다는 표현이 있다. 건강보험은 발전을 거듭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건강욕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질병패턴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급증 및 복잡한 부과체계에 따른 민원증가 등 건강보험 도전요인에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미래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고민해야할 시기인 것 같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어떤 변화를 해야할지 공단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北 3차 핵실험, 단호·의연하게 대처해야

북한이 12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핵실험을 하면 추가 대북 조치가 불가피한데다 이에 대한 북한의 후속 반발 수위에 따라 초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유엔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도발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이 결의는 중국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조치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한 이상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조치에 반발해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상황이 파국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결국 북한의 도발이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사태로 이어졌다. 북한이 제재는 곧 전쟁이며, 선전포고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 등지에서의 대남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꿰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렇다라도 모두에게 공멸을 부를 극단적 선택만은 안 된다.

정부와 박 당선인 측은 미국과 중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냉정함을 잃고 섣불리 대처할 경우 자칫 북한의 계산된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특히 정부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비,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신종범죄 '파밍' 피해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인터넷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에서 한 단계 진화된 '파밍(pharming)' 수법으로 고객 돈을 빼가는 신종 금융사기까지 발생해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146건의 파밍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도 9억6000여 만 원에 달했다. 또 최근 파밍사이트를 통해 시중은행 고객 공인인증서 461개가 유출돼 금융감독원이 일괄 폐기하기도 했다.

파밍은 보이스피싱보다 한 단계 진화된 것으로 은행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가짜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주소, 디자인이 같은 데다 최근 발생한 사건처럼 고객정보를 입력하면 홈페이지로 연결, 진짜 은행업무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속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주부 유모(39)씨는 지난해 11월 자녀학원비를 이체하기 위해 평소처럼 인터넷에서 거래은행에 접속, 안내창에 따라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며칠 뒤 1763만 원이 타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직장인 김모(40)씨도 같은 수법에 걸려 1000여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문제는 범죄꾼들이 PC 자체에 가짜 IP를 심는 탓에 현재로선 이렇다할 예방책이 없다는 점이다. 보안업체 관계자들이 보안카드의 코드번호 전체를 입력하길 요구한다면 100% 파밍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주의를 촉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용사회 첫걸음인 온라인 금융거래 관리가 이토록 허술하다면 피해는 물론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파밍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시스템 보완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사법당국도 범죄꾼을 색출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아이돌(Idol)

요즘 아이돌(Idol)이 그런 것처럼, 과거에도 미소년 또는 미남자들이 높은 인기를 누렸다.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명사들의 독특한 언행과 일화를 담은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따르면, 중국 최고의 미남으로 꼽히는 반악(潘岳)은 얼마나 잘 생겼던지 그가 외출할 때마다 수많은 부녀자가 몰려들었다. 한 번이라도 눈길을 받기 위해 앞다퉈 수레에 과일을 던져주는 바람에 '척과영거'(擲果盈車)'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또 다른 미남자인 '위개'(衛玠)는 뛰어난 용모 때문에 허망하게 죽었다. 한번은 그가 거리에 나서자 둘러서서 보는 사람이 벽을 이룰 정도였다. 팬들은 그를 겹겹이 에워싸고 함께 뛰고 걸었으며, 놀라고 지친 위개는 결국 기절해 쓰러진 채 죽었다. 간살위개(看殺衛玠)라는 고사의 유래다.

조조의 양아들이자 공리공담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하안(何晏)도 미모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다. 앉으나 서나 그의 손에서는 화장품이 떠나지 않았으며, 길을 가다가도 자신의 그림자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수시로 자세를 바꿨다. 동양의 나르시스였던 셈이다.

위나라의 왕 조예가 하안의 맨얼굴이 정말 새하얀지 알고 싶어 한여름에 궁으로 초청, 펄펄 끓는 탕면을 먹게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얼굴에 줄줄 흐르는 땀을 붉은 소매로 연방 닦아내자 얼굴이 더욱 밝고 환해져,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남성의 미모는 같은 남성을 유혹하기도 한다. 한나라의 애제(哀帝)는 자신의 옷 소매를 깔고 잠이 든 애인 '동현'을 차마 깨우지 못해 옷소매를 칼로 잘라냄으로써 '단수지벽(斷袖之癖)'이라는 고사를 만들어냈다. 한애제는 천성이 유순한 다섯 살 아래 동현에게 황제의 자리까지 물려주려 했을 만큼 그를 사랑했다.

하늘이 내려준 아름다운 용모와 다정한 태도를 자랑하는 이들 옛 미남이, 성형수술로 미남·미녀를 만들어내는 요즘 세태를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치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경제부	2200-663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디자인실	2200-536
여론매체부	2200-621	서울지사	02-773-9331
체육부	2200-697	프로젝트팀	2200-555
사진부	2200-693	〈FAX	02-773-9335〉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